

## <할망본풀이>

- 일시 : 2018. 08. 18

천왕불도 할마님. 지왕불도 인왕불도 서가산 서불법 맹진국 할마님 초사흘 초일  
퀘 열사흘 열일퀘 쓰무사흘 쓰무일퀘 중칭 비당상유이색적 당돌림 받아오던 할마님  
네다. 천왕보살 지왕보살 인왕보살 칠십삼보살님네 올립네다.

할마님은 서천공서 삼진 정월 초사흘날 금시상에 탄생허엿구나. 탄생허니 금시상  
에 느려상 임진믄루 서불땅을 설련허젠허난, 연반물 치메 진녹색 저고리 코제비 보  
선 물맹지 줄장옷 호양망텔 둘러쓰고 아그랑 막텅일 짚고 혼손에는 번성꽃 혼손  
에는 환생꽃 고득 안양 금시상에 느려삿구나. 느려사난,

임진믄루 서불땅을 설련허연, 일칭경 이칭경 삼칭경을 설련허엿구나. 할마님은 동  
양삼국 서양각국 줄이 팔만 십이제공 산정기 물정길 보명 조순을 내와준 할마님이  
로구나.

흐를 날은 초파일이 돼여지니 일천장에 종이 붓에 먹을 곶안 산정기 물정기 보명  
조순내왕 땡기단보난, 하늘옥황에서 인간에 호명을 주저 혼합천지대별상이 영기지  
기 몽기지기 파랑당지기를 거느리고 와라차락 놀려들언 할마님 면전에서 깜짝 놀란  
업대를 헌거라. 높은 어른 암시카부덴 업대를 허난, 서불왕이 허는 말이,

공.....

“누게 췌?”

허난,

“난 인간에 생불 주는 생불 할망이우다.”

또,

“누게 췌?”

들으난,

“난, 혼합천지대별상인디 인간에 호명을 주레 왔우다.”

“금시상에 단뜰애기 킴시메 여기랑 여기랑 절대 호명을 주지맘서.”

젠, 할망은 돌아상 가분거 아니짜. 돌아상 가부난, 고만히 생각해보난. 그땐 여자  
고 남자고 확연히 구별이 텃주. 막상해야 핏내나 맞춰 다니는 할망이 나신디, 꽤썸  
허다이거라.

할마님 사느디 간 보난, 벨충당 문을 열고 보니 앞니명엔 헛님이요. 뒷니명엔 들  
님이요. 별도 송송 들도 송송 오만 화초꽃 한가운디 곱닥헌 애기씨가 잇인거라. 계  
난 흥역을 불러줘 분거라. 흥역을 부르난 애기는 줍속 혈거 아니.

할마님은 애기 내우레 들이저 내우저 땡기단보난, 천기를 둘러보니 애기씨가 줍  
속혈 거 아니라. 돌아오랑 보난, 확 벨충당 문을 올안 보니, 혼번 보고 두 번 불 생  
각이 었어.

할마님은 쉬운대자 수페머리를 풀어, 서른으담 니빠디를 오독독이 물언. 하늘이 높아도 땅이 비가 질로구나. 나신디 소정 올 날이 분명 이실거라. 영혜네 땡겘시난, 땡기다보난, 새서방이 근당헌거라.

“저건 어디 새서방이넴?”

허난,

“혼합천지대별상 아들 장게 갑수덴.”

허난, 요거 잘 만났저. 들머리에 지곡 허연 새각시 집으로 가난게, 이 밤 저 밤 야사삼경 웨어가난, 부베간을 무을거 아니라. 흥애기 소리를 불러주난 할마님은 애기씨를 좁아놔땡 무너사분거라. 무너사니, 혼덜 두덜 서너넉덜 열덜 열두덜이 웨어도 애기가 안나와. 게민 애기어멍이 죽어갈거 아니. 혼합천지대별상 이 어른이 모든 건 다 이신디 애기 내우는 제준 없거든 거난 이젠 메느리도 죽게 땡고, 조순도 못 보곡 허난, 나가 살앙 무시겘 허렌, 방안네 강 문을 중강 앓은거라. 게난 흥신국마 누라님이 하늘옥황 천왕보살님을 좇아 간,

“우리 메느리 애기 못낭 죽을 지경 땡엇우다. 뵘센.”

허난,

그때엔 오왕팔광 단서육갑을 둘러받안 딱 짚으니

“할마님의 노술이우다. 할마님 노술을 풀러사쿠다.”

겐 완, 대별상신디 곁으난, 메느리 살리곡 손지 보젠허난, 흘 수 엇이 올레로 생긴무땡까지 느람지 폐와놓고 진양도폭에 청세띠 나막신을 신고 간 업테를 헨 빈거라. 빌어가곡 빌어와도 할머닌 웨린 척도 아니헤연. 가멍 곁눈으로 보고 오멍 베려 보곡 허니 그냥 앓앙 빌엄거든.

브름 붕에 눈 붕에 다 불러주난, 옷 끝엔 동곳이 지랑지랑헨. 동곳이엔 헌건 거고드름. 지랑지랑 헨 정도로 브름은 세계 부니, 띠 묶은 게 다 클러전. 헤싸저도 앓인디 앓앙 그냥 잇는거라.

“아, 너 양반이 조무레기는 어쩔 수가 없구나. 거문 너의 집으로 가근에 올레로 너네 무땡까지 느람지청 폐와 놓고 대자 길이 석자 녘이 두자 두치 숙섭으로 드릴 놓앙 곱닥허게 드릴 노라.”

할마님 그와 곁이 간보난, 경 출려 놓앗거든.

웨려보난, 애기어멍 죽을 지경이 웨시난, 할마님도 나도 너미 헤졌저 허는거주게. 거난, 건지 벗언 간지에 걸어두고, 물명지 줄장옷 벗언 곤지에 걸어두고, 북덕방에, 옛날은 상방에 검질 깎앙 살앗주게. 북덕방에 금산 이불 깎아단 애기어멍 돌아단 녹전.

할마님이 은줄 곁은 손으로 금줄 곁은 손으로 썰어가난 하늘로는 청이슬이 느리고 땅으로는 흑이슬이 솟아나고, 팔대문이 열려. 옛날은 집이서 해산허젠 허민 애기날 때 웨어가민 손문이고, 췌문이고 다 올라나서. 문이란 문은 다 올라. 경 헤낫주만은 요센 병원에 강 날 때난. 경헨허니 이젠, 할마님이 애긴 내와놔땡 봇차 썩운차 내빈거라. 내비어땡 할망은 집이 와분거라. 거난, 이젠 대별상이 좇아가네.

“할마님, 메느린 살려수다만은 조순은 못 보쿠다.”

“느도, 느 즈순이 중요허주만은 나도 나 자손이 중요허다.”

거난, 대별상이 허는 말이

“게민, 애기를 곱닥허게 만드야 내쿠다.”

“어떻 만드거니?”

허난, 금준치 음준치 석섬닷말 칠세오릴 앓어간 홍역 헐 때 들어가지 안허여. 들 어간 딘 메꾸고, 떠 데와진 딘 폐우고 영 곱닥허게 만드어난. 할마님은 애가 엇인거 라.

이 대목에서가 약간 틀린 점이 이쪽허고 저쪽허고 흐끔 틀려양. 경허난 이 대목 에서

우리는, 이진 나 식이라예.

“재주는 좋수다. 어떻허민 사름을 혼불 두불 세불씩 만드네까?”

이것도 맞인 말이라.

“만드네까?”

영허난예. 할마님이 강보난, 정하님 곶아

“은ㄴ썰 앓엉오라.”

은ㄴ썰 앓아내언 베포롱 줄도 곱을 갈르고, 옛날은 애기 앓은 자리방석은 터진 방더레 강 모셔나수다. 경헐 그레 모셔두고, 콧주뎡이로 주왓 거시난, 우는 소린 글 소리요. 노는 소린 활소리요. 아주 장군감이 낫거든. 이 어른이 하도 기분 좋으난,

“우리 재주만 좋덴 해도 할마님 재주는 더 좋수다.”

읍서. 우리 동서로 곶이 상을 받게 해분거라. 경 허난 할마님이 용심이 난거지.

‘요것들 정신을 못 출렸구나.’

할마님은 옥황에 흐를 낮이 자꾸 왓다 갖다 허여. 경허난, 가명 애기를 열두 송문 불러취뎡 간거라. 가난, 벨 약을 써도 이 애기가 안 좋거든. 안 좋으니까 이젠 혼합 천지대별상이 소별상허고 곶이 옥황에 올라간,

“할머니 잘못헐우다. 우리 즈순 살려줍서.”

겐, 높은 동산은 낮이우곡 얇은 동산은 높이우곡 평지를 만드어 준거라.

“할머님 이 질로 느립서.”

경허명 누리명 이제 오단, 할마님이 나막신을 신엇단 두둘렉이 똑 꺾엉 혹 데깁 거라. 거난, 아, 이 대목에서 할머님 노슬이 안 풀렸구나. 허는 말이 그뎡 대별상이 허는 말이

“쉬운대자 수페머릴 비어당 유모신을 삼아드린들 공을 갓으리오. 용경일 삼아올 린들 공을 갓으리오.”

영허니까. 그뎡엔, 겐 느려사단보난 옛날은 할망맛이에, 불도맛이에 꼭 마당에서 헐우다예. 딱 동더레, 건 막은 방도 필요엇어 딱 동더레, 해뎡이로만.

경 오단보니 물멩지 쟁멩지 세미녕 세마페 다 드리 놓고, 명드리도 농곡, 복드리 도 농곡, 불도드리도 농곡, 월광드리 농곡, 혼 일곱자 걸렛배 석자 오자 바랑꾼 다

출려 놓고, 송낙귀도 구만장 막 출려 논거라.

출려 난 허는 말이, 원래 원칙상 맛이 칠 때는, 옛날에 맛이 칠 때는 바람으로만 맛이 첫우다.

원래 원칙이, 원래는 심방이 맞일 안 처났우다.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불도할 마님네가 맛이를 처났우다. 경허당 변천이 뻘는데. 그래서 상촉권상 초미올라 초장상, 이미올라 이장상, 사미올라 삼서녕 삼주잔을 받안들영 우리 남쪽으로 할망 맛이 처음 시작허젠허민 바람부터 칩니다. 바람 딱딱 세 번 청 놔뵤 상불 들렁 상불 폭 살황 무똥으로 안내까지 영 옵니다. 와서 올려 놓고 그 다음에 시작허는데

그래서 오단보니까 할마님이 막 출려 험시난,

“우린 이런 정성 아니 받아도 뵤니텐.”

할망이 확확 건언 데껴분거라. 데껴뵤 간보난 애기 죽어감시난,

할마님 은줄 끝은 손으로 쪽 시난 애긴 어느때 영 해나신지 좋아분거라.

경 허난 대별상 내외가 허는 말이,

“이구산에 만리투성을 둘러서 허베를 헌들 할마님 공을 갓으리오. 우리나라 왕의 손도 할마님이 내우고, 일정승 이정승 삼정승 육판서 추서, 참봉, 가깝 수령도 다 할마님이 내운 조순이우다. 이 주당 이 주당에도 다 할마님이 내운 조순이우다.”

영헨 놔뵤 올라가젠허난

할마님이 그 대목에서

“과연, 이젠 할마님이랑 웃상으로 앓읍서. 우리랑 알상으로 앓앙 먹으쿠다.”

예를들영 경 헛젠 허주게. 그 법으로 옛날엔 애기들 아파가민 우선 할마님에 빌어. 옛날엔 메 세 보시, 이제나 사발이주. 옛날엔 보시예. 메 세 보시, 독세기 세 개 숭아 놓곡, 메역 체, 놈비 체 세 가질 헤여. 딱 생으로만. 경헨 낳은에 강 지전 혼 서녁 장 놓고 소지 석장 낳 막 업데 헹 빌어. 막 빌어가민 할마님아, 겐 빌어뵤 안 뵤민 이젠 맞일 처야뵤어. 겐 맛이 처뵤 안뵤면, 맛이 치민 또 애기가 좋아. 애기가 엇어도 맛이를 치는거고,

또 이것도 잇우다예. 애기가 아주 중헌 사름 집이는 지금은 풍습이 엇어전. 나도 혼번 해봤는데 일광 월광 맛이를 처예. 아침이 혼번 치고 저녁에 혼번 치곡 두 번 쳐. 이게 이젠 엇어져수다.

옛날엔 그런식이 잇어나수다. 워낙 귀헌 집덜은 아침 맛이 치곡, 저녁 맛이 치곡.

우리 남쪽드레는 칠성을 원래 끝이 안헉니다게. 이쪽드레 완보난 칠원성군도 끝이 낳 허는데 우리 저쪽드레는 경 끝이 안헉니다.

저쪽더렌 어떤 식으로 허냐면, 우리 쪽으론 그 디 밧칠성을 모셨다던가, 성군이오 별거라도 그레 풍습이 경헤부난, 경 안허는데 칠성맛이를 따로 쳐. 있으면 다로 헉니다. 할망맛이는 여기 출리고, 이쪽엔 펑풍 청 칠성상을 출려. 겐 문도 따로 올려. 이던 완보니까 같은 계열로 알로 칠원성군 송낙 헹 같이 해부는디 우리 남쪽엔 엄연히 딱 고립을 갈라예. 고립을 갈랑 허는 일이고,

할망본풀이는 막 여러가지우다. 막 많으우다. 이것 잇고 저것도 잇고예. 웨냐면

삼승,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옛날엔 심방 어른덜이 맞일 안쳐수다. 아주 옛날에는 불도할망 만이 꼭 맞이를 치게 뵈거지. 바람으로만. 우리 어릴 때도 봐수다. 우리 동네도 구할망이라고 잇었는데, 그 할머니도 보면 항상 바람으로만 맞이 쳐. 바람으로 도업도 다 치꼭, 바람으로만 할마님네가 딱 앓양 손으로 행동을 다 해. 손을, 말 굴으멍 아 어느 애기우다. 영 혜수다. 뭐 할마님이 영 혜줍서. 다 항상 공손히게. 항상 이런 게 이수다. 경험 마지막 할망 본풀 때 뵈민 딱 꿏여 앓양 업테혜영 바람치멍 그때 본풀이가 들어가주게.